

‘돈황학 대사전’ 韓 번역판 출간된다

금강대 불문연·고려대 민족연, 3년 작업... 10월 발간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돈황학은 세계에 있다.(敦煌在中國, 敦煌學在世界)”

중국의 인도학과 문화사 연구의 대가 지센린(季羨林)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그 역사·문화적 연구 가치는 세계적이다. 특히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돈황지역은 막고굴 등을 비롯해 고대 불교 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곳도 돈황 막고굴 제17굴 장경동에서다.

“불교 문화의 보고”이자 ‘동서문화의 십자로(十字路)’였던 돈황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돈황학 대사전>의 한국어 번역판이 오는 10월 출간된다.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조성택)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관준)이 두 연구기관의 인문학연구원(HK)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 3월 공동 번역을 합의한 두 기관은 그해 8월에 정식 협정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번역과 교정을 진행해 왔으며, 이후 감수와 수정을 거쳐 오는 10월에 정식으로 <돈황학 대사전>을 출판할 계획이다.

번역은 철학, 역사, 종교, 문학, 미술, 건축 등 각 분야 전문 연구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역자로는 류준형(영남대), 정병운(한국외대), 최병학(금강대), 한

지연(금강대) 교수 등이다.

또한 두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경전, 불교 벽화, 전적, 미술 등 불교 관련 분야를 맡았으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원은 역사, 어문학, 도상, 복식, 관련 저작, 연구자 등의 분야를 번역했다.

漢字 200만자, 표제어 6925개

불교미술·건축부터 민속·문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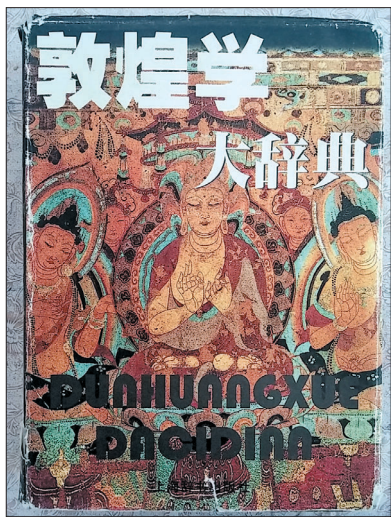
돈황학 'A to Z' 담아낸 대사전

중서 13년 집필 거쳐 1998년 발간

종교·문학 등 전문가 번역 참여

“불교교류사 중요한 자료 될 것”

<돈황학 대사전>은 중국돈황투루판학회, 화평연구원, 상해사서출판사의 합작으로 13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집필을 거쳐 1998년에 출판됐다. 이 작업에는 원로부터 중견, 청년학자까지 중국·대만·러시아 등 돈황학 연구자 120여 명이 참여했다. 당시 집필에 참여했던 신진학자 통신장(榮新江), 왕산청(王三慶), 정아차이(鄭阿財)



중국에서 1998년 발간된 <돈황학 대사전> 표지. 표제어가 6900여 개에 달하는 <돈황학 대사전>은 돈황학 연구를 총망라하고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노력으로 오는 10월 한국 어판이 정식 발간된다.

등은 중국과 대만의 돈황학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돈황학 대사전>은 사실상 돈황학 연구 성과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240만자의 한자가 사용됐고, 표제어만 6925개에 달한다. 표제어를 살펴보면 석굴·설법도·경변도·불교 전적·사경 등 불교 관련 분야부터 정치·법률·경제·복식·음악·천문학·민속·종교(도교, 경교, 마니교 등)까지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또한, 채색 그림 123폭과 텍스트에 달린

삽도 626폭 등 수많은 사진과 그림 자료들을 첨부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벽화나 유물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답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은 연구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돈황학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돈황학 대사전>은 한국 불교와 문화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 발간 의미에 대해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돈황 석굴은 건축이면서도 조각과 회화 등이 담긴 종합적 예술품이자 문화유산이다. 또한 북위부터 청대까지 적지 않은 불교 문화재가 보존돼 있다”면서 “이 같은 문화유산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불교 문화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황의 방대한 문화에 대한 전문 연구를 한 권으로 망라한 것은 <돈황학 대사전>이 유일하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그 의미가 깊다”면서 “인도·중국·실크로드의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 연구에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번역 책임을 맡고 있는 전광훈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역시 “불교 문화의 교류는 고대 한국인의 발자취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돈황학 대사전>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문화 교류사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주)현대불교신문(대표 헤럴 스님, 박개성)과 BTN불교TV(대표 구본일)는 6월 15일 상호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언론 발전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은 본사 서춘권 관리부장(사진 왼쪽)과 반대용 BTN 문화포교국 총괄국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불교TV 업무협약 체결

6월 15일 협약식... 불법홍포위해 사업 추진

(주)현대불교신문(대표 헤럴 스님, 박개성)과 BTN불교TV(대표 구본일)이 불교언론 발전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대불교신문과 BTN불교TV 측은 “6월 15일 서울 종로 수송빌딩 2층 현대 불교신문 회의실에서 상호 홍보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상호 매체를 통한 교환광고를 진행하며, 향후 각자 주최 행사나 사업에 홍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향후 공동기획 등에 있어 양사 콘텐츠를 상호 교환해 영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BTN불교TV에는 현대불교신문 홍보영상이 매일 3회 방영되며, 현대불교신문에

는 BTN광고가 매주 1회 게재된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에는 BTN의 주요 프로그램과 편성 내용이 격주 기면 기사로 실릴 예정이다.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현대불교신문이 지면을 통해 BTN의 다양한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소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용 BTN 문화포교국 총괄국장은 “불교언론의 발전을 위해 신문과 방송의 상호협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에 불교계 매체들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상설 공직자 종교편향 감시 기구 결성”

연석회의, 18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 직후 발족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반대 시위를 펼쳤던 범종교인 연석회의가 공직자 종교편향을 상설 감시할 기구를 결성할 뜻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후보자보다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던 황교안 후보자는 그간의 의혹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모르쇠로 일관하여 검증을 회피했고, 메르스 비상사태로 국민 여론이 느슨해진 틈으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았다”면서 “황 후보자는 종교인들의 우려를 오히려 옹고, 철저한 정교분리와 중립의무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들은 이번 국무총리의 임명과정에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국민들의 항시적인 철저한 감시에 의해서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가칭)공직자 종교편향 감시 범종교인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향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공직자의 편향적 종교적 가치관이 공직 수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는 6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식발 시위를 열고 황 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행에 있어서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 종교적 중립의무를 지키는 자만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연석회의는 그동안 편향적 종교관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임명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15일에는 황 후보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식발식과 기자회견 가졌으며, 이에 앞서 성명서 발표,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국회 앞 1인 시위 등 황 후보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신성민 기자

대화문화 선도 ‘함께하는 경청’ 출범

화평문화아카데미 등 참여 정념 스님 명예 이사장으로 ‘공공대화’ 등 사업 추진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속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루 몇 분이나 할애하고 있을까? 타인과 소통 부재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경청’의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화평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 이하 화평아카데미)·한국리서치·중앙일보는 공동 주체로 6월 17일 서울 안국빌딩 신관 4층 W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대화 문화 만들기 위한 ‘함께하는 경청(이사장 정성현, 이하 경청)’ 출범식을 열었다. 정념 율사주지 스님과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웍 회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김명자 前 환경부장관, 김진현 前 과학기술부 장관



화평문화아카데미·한국리서치·중앙일보는 공동 주체로 6월 17일 서울 안국빌딩 신관 4층 W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대화 문화 만들기 위한 ‘함께하는 경청’ 출범식을 열었다.

을 비롯한 경청시민단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청은 우리 사회 진정한 대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시민의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 창설됐다.

경청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공통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또 정치이념·세대·성별·계층 간 갈등과 분열이 날이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제도나 법적 기구

는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상생의 화평 정신이 필요하다. 화평은 시민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명예 이사장 정념 스님은 “나와 남, 자연의 소리를 모두 귀담아 들을 때 완성된 경청”이라며 “사회가 복잡다단

해지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많아지는 시대에 ‘함께하는 경청’이 올바른 대화 문화를 선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청은 향후 주요 사업으로 △공공대화 주최 △한국형 대화모델 개발 및 교재 출판 △경청시민단 및 시민교육 △대화 진행자와 전문가 양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핵심사업인 ‘공공대화’는 공적주제에 대해 일반 당사자들이 대화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참가자들은 스토리텔링(쉽고 재밌게 이야기 하는 형태)과 경청을 통해 상호이해 및 공감을 형성한다. 경청은 패널 대화 후 매스컴을 통해 대화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유해 올바른 대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015년 공공대화 주제로 ‘세대 간 갈등과 대화’를 선정했다. △7월 18일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45살 아들과 45년생 아버지’ 대화 △9월 12일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좌절하는 청년들, 불안한 중년들, 성난 노인들’ 삼자 대화 △11월 14일 지켜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할 것,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2030과 40대 이후’ 대화 등 진행될 예정이다.

박익문 기자 pak502482@hyunbul.com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⑫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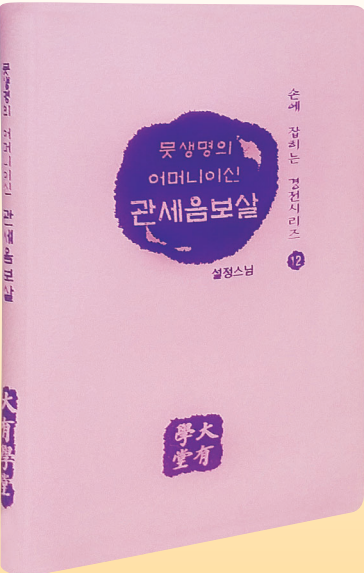
‘천수경’과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보살행’ 성불의 세 단계를 차례로 담은 글입니다.

먼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공부하며 수양하면서도 세상을 구제하심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초지보살 시절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시다가, 그분들의 영험하신 보살행에 감동하시고, 나도 그분들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밝게 살피 구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자, 순식간에 8지보살의 단계로 초월하셨고 몸에서는 천 개의 손이 나왔는데, 각 손바닥에 눈이 하나씩 달려서 ‘천수 천안’ 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눈과 두 손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다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문을 ‘천수경’ 또는 ‘천수 천안 대라리나’ 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 ‘42수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행이 담겨있습니다. 42개의 손 모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서원한 진언이 ‘42수 진언’ 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력동시가 효과적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될 때, 안에서 어미닭을 보고 “엄마! 나 나 갈게요.” 하고 알의 안쪽을 톡톡치면, 어미닭이 그대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 알의 껍질을 푹푹하고 쪼아주어야 예쁜 병아리가 쉽게 세상에 나옵니다. 어미가 성급하게 쪼으면 부화될 준비가 덜된 병아리가 다치기 쉽고, 너무 느리면 알 안에서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톡톡·푹푹하고 쪼아야 새생명인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마찬가지로입니다. 나 자신이 정성스럽게 참회하며 기도하면서 깨우치고자 하면, 부처님보살님께서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고 눈으로 살피시며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성불이 담겨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관자재보살입니다. 중생을 관찰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살행을 할 때, 언제 어디든 찾아가 구제한다고 해서 자유자재한 보살 즉 관자재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반야심경’을 읽고 성불해서 피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 경전의 글은 모두 관세음보살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깨어나 피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이 세 개의 경문이 어미닭이 되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세 경문 앞에 예불경문을 실은 이유는, 이 세 경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있다가 이 세 경전을 음송(소리내서 읽음)하는 영역에 잘못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작은 신 또는 생명체가 세 경문의 힘에 눌려서 당황하고, 또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원망을 만들어 새로운 악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경문을 독송하기 전에 예불경문을 먼저 독송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주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특히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그림을 넣어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오색금실로 글과 그림을 수놓아서 남긴 이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정말 귀중한 자료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구해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송이 연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천수경’과 ‘42수 진언’을 보면, 과연 부처님의 참 진리는 만고에 빛나는 생명수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동하신 ‘천수경’과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을 지성으로 음송하시고 다른 중생에게도 전파하시어서, 그 공덕으로 더욱더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이 세 경문을 음송하십시오. 한 번을 음송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열 번을 음송하면 열 번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천 번 만 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음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그 힘을 나누어 주시고, 이 책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염원을 담아 열 번을 독송했다면 틀이 하면 스무 번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세상을 살다가, 모두가 염원하는 극락정토로 가서 사시기를 바라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대우학당 | 절정스님 | 값 10,000원 | 192쪽 | 가로 9.5cm x 세로 15.5cm

수덕사 덕승총림 방장 승연 절정

주문처 02)2249-5630 범보시 주문받습니다.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